듣는 강론

가톨릭마산

연중 제10주일
그라츠 자매교구의 날
2024년 6월 9일
제2621호

참가족 © 사진 / 양병주 분도

주일 전례

제 1 독 서 창세 3,9–15

화 답 송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제 2 독 서 2코린 4,13–5,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리라. ◎

복 음 마르 3,20–35

영 성 체 송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시옵니다.

▷ **그라츠 자매교구의 날 서한 및 기도문 4~5면**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사무처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헌로 72 **홈페이지** http://cathms.kr **유튜브채널** 천주교마산교구

악(뱀)에 대항하는 새로운 공동체

손권종 다니엘 **신부**
지세포 성지 담당

>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여기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섰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군집(공동체)을 이루고 있었다. 이런 예수님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있다. 여기에 대항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티어 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티어 내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라짐이 없는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함을 역설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공동체는 “하느님 뜻”을 실행하는 공동체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어머니가 되어주고, 형제요 누이가 되어주는 공동체다. 새로운 공동체의 선언은 인류 최초의 공동체가 이루지 못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다.

1독서 창세 3,9-15 창조 때 인류 최초의 가정(공동체)은 서로에게 협력자가 되어주는 공동체를 지향했다(창세 2,20 참조). 하지만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어색해지고 말았다**(창세 3,3 참조). 인류 최초의 가정도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불완전한 상태로 출발하였다.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는 공동체를 갈라서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한다.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은 에덴에서 추방되었다.

인류 최초의 공동체인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자신의 실수로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지 않았다. 아담은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며,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댄다. 아담은 죄의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며 말하고 있지만, 속뜻은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으니 잘못의 근원은 하느님께 있다는 논리이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탓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인간이다. 하느님은 아담과 논쟁(더 이상 묻고 따지지 않고)하지 않고 아담의 변명을 그냥 받아들이신다. 사람들 간의 갈등 구조와 아주 다르게 반응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다.

이어서 하느님께서는 하와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창세 3,13) 하고 물으시자, 여자도 “뱀이 저를 꾀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댄다. 하느님은 여자에게도 더 이상 묻지 않으시며, 여자의 대답을 존중하신다. 인간의 추함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세상에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런 일은 인간 삶에 비일비재하다.

이때 “너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에게 물으신 하느님의 질문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다. 창조 때 본래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를 물으신 것이다. 왜 서로에게 협력자가 되어주지 못했냐고 질책을 하신 것이다. 우리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인류 최초의 가정공동체는 서로에게 짐(탓)을 지운 채로, 어색한 가운데 미완의 상태로 마무리되었다. 그래서인지 자신이 속한 가정이나 사회집단 내에서 서로 남 탓을 하며 살아가는 일을 쉽게 볼 수 있다. 서로에게 탓을 지우는 행위는 마귀의 우두머리(뱀-악)에게 휘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마귀의 활동 목표는 사람이 하느님과 멀어지도록, 또 공동체가 갈라지도록 인간을 설득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항하는 예수님의 선포는 창조 때 본래 모습의 회복이자, 더 힘센 분으로써 미완으로 남아 있는 공동체에게 악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늘 깨어 있어라

김진희 세레나 시조시인/ 가톨릭문인회

"오늘, 말씀 듣는 태도가 제일 좋은 사람은 상을 줄 거예요."

어릴 적 친구 따라 간 교회에서 목사님의 성경 이야기는 너무 신비스럽게 들렸다. 생각해 보면 아마 모세의 이야기인 것 같다. 매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마룻바닥에서 꿇어앉아 듣는 목사님 설교가 그리 가슴에 와닿을 리 없었을 것이다. 반쯤 누운 채로 있는 아이, 장난을 치며 등에 낙서하는 아이, 소곤거리는 아이들로 산만한 주위 분위기는 집중해서 들어야만 했다. 아무튼 그날, 목사님의 성경 이야기에 나는 거의 푹 빠져 있었다.

예배가 끝나자 자세가 좋은 아이에게 상까지 준다니…. 예수님 얼굴이 그려진 사진 3장을 처음 받았을 때 큰 보물인 양 안방 벽에 풀칠을 해서 딱 붙여 놓았다.

부모님은 당시 절에 가끔 다니며 경을 외우기도 하시는 분들로 벽에 붙여진 사진을 보고 크게 야단치셨다. 내가 신앙을 이해하기는 아직 어린 나이라 부모님의 태도에 실망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때는 알 수가 없었다. 어쩌면 내 믿음의 첫 순간이 그날 교회 목사님의 설교인 것 같다. 그 후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며 성경읽기에 온 시간을 보냈다.

젊은 날 종교와는 먼 거리에서 지내다 서른 중반이 되어서야 가톨릭에 입문하여 성사를 보았다. 집을 떠나 부모님을 멀리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십자가를 볼 때면 죄스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가난한 내 믿음은 불안하고 부족하였다.

"늘 깨어 있어라."

일상이 되풀이되고 나태해지는 마음에 게으름을 피우면 머릿속을 맴도는 말씀이다. 마음이 깨어 있으면 남을 배려하게 되고 상대를 먼저 살피게 된다. 그렇게 영적 깨우침을 다지며 늘 깨어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는 성사를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지고 자주 울컥해진다. 어떤 날은 감정이 격해져서 말도 잇지 못하고 한참 동안 감정을 추스르기도 한다. 성사 후, 나 자신이 부끄럽고 민망하여 성사를 보는 것이 두렵고 망설여지기도 한다. 언제쯤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지 내겐 숙제였다.

'긴장하며 늘 깨어있는 삶을 살기엔 너무 힘들어.' '다 그렇게 풀어져 사는 거야.' '이젠 하느님을 마주하며 당당하게 살아도 돼.' 이런 속마음이 작용했는지 언제부턴가 예민한 감정이 서서히 무뎌지고 있었다. 성사를 볼 때, 거리낌 없는 나를 보며 의심스러울 정도로 태연하기까지 한다. 그렇다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도 않으며 말씀 속에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두꺼운 철판이 깔린 강심장이 되어가는 듯하다.

순수한 마음에 하느님의 말씀으로 물들던 그 믿음과 정신을 다잡으며 나는 오늘도 되뇌어 본다. "늘 깨어 있어라."

제18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사무처 홍보부(51796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헌로 72)
- **마 감:** 9월 30일(월)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겉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원고는 워드로 A4 용지에 글자 크기 11포인트로 작성할 것

2024년 그라츠
자매교구의 날

DIÖZESE GRAZ-SECKAU

그라츠-섹카우 교구장 서한

사랑하는 마산교구의 형제자매 여러분과 존경하올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님!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에 의지할 수 있고,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 구원의 약속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계획이 아니므로,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예레 29,11)

많은 전쟁과 수천 명의 죽음, 전복된 난민보트들, 위협적인 기후 변화와 우려되는 여러 상황들 앞에서 하느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은 우리에게 영속적인 희망이 되어줍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았고 파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공동체 안으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하기 위해 현 세태 한가운데에 서서 용감히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구에서 시행한 새로운 사목 구역 개편은 유럽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입니다. 조직과 사목을 위한 공동책임에 있어 평신도와 사제의 협력은 교구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지니고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시작하신 세계 주교 시노드 과정에 깊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의 한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례와 견진성사를 통한 모든 사람의 보편성소에 대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신학적 성과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교황, 주교 그리고 사제들뿐 아니라 '세례받은 모든 이들의 믿음'을 통해 미래로 이끌고자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또한 오늘날 그분의 영을 통해 활동하십니다. 교회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곧 성령께 귀 기울이는 것임을 아신 교황께서는 그 방식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세계 주교 시노드의 종합 보고를 위한 우리 교구의 집중적인 협의에서 중요한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선교적 이행, 내적 교회 참여와 여성들의 지위에 대한 물음이 중요사안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경우 여성 부제품에 대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증언을 위한 용기, 개인적인 신뢰와 더불어 사람들의 의견들을 소중히 경청하여 그들의 요구들을 파악하는 것은 특히 비판적인 사람들이나 그들과의 논쟁에서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에게 특별히 요청되는 능력입니다. 다양성과 일치는 보편적 교회의 사고에 있어서 결코 상호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마산교구에서 보내주신 적지 않은 금액의 기금(매년 공동프로젝트 명목으로 그라츠교구로 보내는 2만 불)에 대해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소중한 기금을 사목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그라츠 내 실업자들의 지원과 교육, 노숙자들을 위한 거주시설, 베트남 여자 수도자들의 사목활동 그리고 남자 수도자들의 청소년 사목을 위한 활동에 사용하였습니다.

53년 전 장병화 요셉 주교님과 요한 베버 주교님에 의해 시작된 우리 교구 간의 자매결연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 조직과 사목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질문들은 대륙을 넘어 하나의 학습공동체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새 교구장 주교님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에 함께하고, 마산교구에 좋은 주교님께서 오시기를 희망하며,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일상에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청합시다.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둘 수 있는 용기를 가집시다.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나아가며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모든 길에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2024년 6월 9일 자매교구의 날
그라츠-섹카우 교구장
빌헬름 크라우트바쉘 주교

Bischof Wilhelm Krautwasch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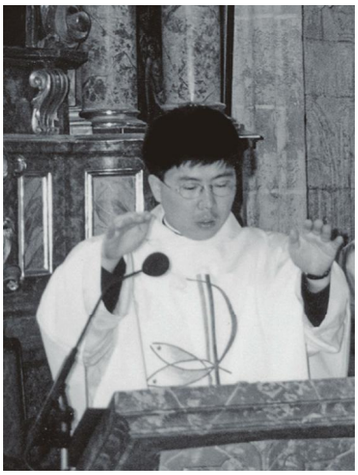
그라츠-섹카우교구를 위한 기도

온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
그라츠교구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당신 안에 저희 모두가 한 형제자매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라츠교구의
모든 형제자매들을 성령의 풍부한 열매로 축복해 주소서.
특히 부족한 사제성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라츠교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어 그라츠교구가 발전하게 하소서.
또한 그라츠교구와 마산교구의 자매결연이
당신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당신 사랑의 표지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교구장 인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정진국 바오로 신부



1993년 학부과정을 마치고 그라츠로 유학이 결정되었다. 누군가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내심 가고픈 생각은 없었다. 집 떠나면 고생이듯, 유학길이 여행길 같을 리 없고, 사제의 유학생활도 고달프다는데 신학생의 유학생활이야 불 보듯 뻔했기에. 그러나 신학생에겐 선택이란 없다. 사제도 순명의 삶을 산다는데 신학생이라면 더 엎드려야 하니! 그렇게 그해 봄 난생처음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이문열의 소설『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의 배경 도시이며 마산교구의 자매교구인 그라츠로 떠났다.

듣고 말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어느 날, 부학장 신부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체면과 자존심을 내세워 '알겠다'고 답했다. 물론 일부는 알아들었다. 내일 나보고 뭘 해달라는 말이었다. 다음날 내용을 잊었으니 다시 이야기해달라는 말로 나의 무능함을 감추려는 잔머리만 굴렸다. 이튿날 게으름을 피우던 나는 급기야 아침미사마저 빼먹고 말았다. 오전에 마주친 부학장은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었다. 아침미사 복사를 서 달라는 말에 알겠다 해놓고서는 미사조차 나오지 않은 내게 단단히 화가 났던 것이다. 나는 쥐구멍을 찾아야만 했다.

1995년도 성지주일, 나는 십자가잡이 복사를 서게 되었고 사전 연습을 마친 후 제의실에서 전례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버 주교님을 비롯한 그라츠교구의 참사위원 등 이른바 고위 성직자들이 제의실로 즐비하게 모여들었고, 나름 긴장했던 나는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십자가를 잠시 벽에 세워두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벽에 걸쳐둔 십자가는 중심을 잃고 바닥을 향해 넘어지고 있었고 나는 등골이 싸해짐을 느끼며 되돌아섰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성지주일 사제단을 이끌고 행렬 선두에 서야 할 십자가가 대리석 바닥으로 넘어지고 만 것이다. 석고 재질에 고풍스럽게 채색된 행렬용 십자고상은 산산조각 났고, 주교님을 포함한 모든 눈이 그리로 향했다.

그렇게 산산조각 난 250년도 더 된 문화재급 십자고상의 운명처럼 나의 미래도 곧 추락하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잠시 당황하시던 주교좌 주임 겸 학장 신부님은 제의방지기에게 새로운 십자가를 준비하게 하고, 어쩔 줄 모르던 나를 다독거리며 빠르게 상황을 수습하셨다. 징계는 따로 없었다. 하지만 성지주일 행렬용 십자가로 쓸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십자가였고, 수백 년 넘게 주교좌성당의 행렬 선두를 지키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저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나의 교만과 게으름, 실수와 욕심이 원인이 되어 문화재급 십자고상을 깨 먹고, 미사 복사 당번을 잊어버리고, 와인과 슈납스라는 독주에 취해 때로는 비틀거리며 추락하는 나였다. 함께 유학생활을 한 교구 선배님들과 그라츠의 신학생들, 부학장이시면서도 친구처럼 대해주신 에디 신부님과 누구보다 따스하게 아버지처럼 대해주시던 라퍼Gottfried Lafer 학장 신부님의 배려와 관심이 날개가 되어 마침내 1997년 봄 수업을 끝낸 뒤 그해 여름 사제품을 받고 귀국하게 되었다.

이후 2012년과 2016년 두 번 그라츠를 방문했다. 그때마다 따스하게 맞아주시던 라퍼 신부님을 기억한다. 신학원 학장직은 그만두셨지만 사제 부족으로 주교좌 주임은 팔순을 넘겨서도 여전히 맡고 계셨다. 그리곤 지난해 12월 18일 마침내 하느님의 품으로 귀천하셨다. 그분이 반평생 그라츠 신학교의 학장으로 재임하시며 흘린 땀과 정성이 마산과 그라츠를 잇는 가장 튼튼한 인연의 끈이었다고 생각하기에 특별히 추모의 마음을 담아 고인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드린다.

『그라츠–섹카우교구와 동행 50년』에서

기억할 선종 사제

문영수(시몬) 신부
1994년 6월 14일

기억할 선종 사제

정삼규(요한) 몬시뇰
1999년 6월 15일

故 정삼규 요한 몬시뇰 25주기 추모미사

일시: 6월 15일(토) 11:00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문의: 정영규 신부 010·3599·2009
▷미사 후 점심 식사 준비

교구장 서리 동정

재무평의회
일시: 6월 11일(화) 10:00
장소: 교구청

청주교구 멍에목성지 세례성당 축복식
일시: 6월 15일(토) 14:00

교구/본당

재무평의회
일시: 6월 11일(화) 10:00
장소: 교구청

교구 성경특강
일시 및 장소: 6월 10일(월) 사파동성당(마산·창원지구), 6월 11일(화) 칠암동성당(진주·거제지구) 10:00~13:10
내용: 지혜문학
강사: 박병규 신부(대구대교구 홍보국장)
참가비: 티켓 5천 원(간식 제공)
문의: 성경사목부 055·249·7025~6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웰다잉(Well dying) 교육
일시: 6월 11일(화) 10:00~13:00/ 6월 13일(목) 10:00~14:00
장소: 대방동성당
주관: 교구 연령연합회
회비: 2만 원(대방동성당에서 점심 제공)
문의: 연령연합회 웰다잉 교육부 010·2836·3839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6월 기도모임
일시: 6월 17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2층 성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버스시간표: 가음자이(10:50)-반송(11:00)-시티(11:06)-현대주유소(11:16)-구 교구청(11:40)-교구청(12:10)
문의: 회장 010·8771·4577

포콜라레 여름 마리아폴리
일시: 7월 19일(금)~21일(주일) 2박 3일
장소: 경주 코모도 호텔
주제: 부르심을 받고 파견된 사람들
접수: 6월 12일(수) 12:00~19일(수) 17:00까지 선착순 마감
신청: http://www.focolare.or.kr

2024년 민족화해상 시상식 및 평화아카데미
일시: 6월 19일(수) 19: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강당
수상자: 창일통일마라톤조직위원회
주제: 디아스포라 한민족-재일동포를 중심으로
강사: 임선우 교수(한국학 박사)
주최: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문의: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055·249·7168

기 타

바오로딸과 함께하는 젊은이피정
일시 및 장소: 서울 본원-6월 22일(토)~23일(주일)/ 6월 26일(수)~27일(목)
여주-7월 13일(토)~14일(주일)
대상: 2030 미혼 여성
문의: 010·2507·1610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시: 1박 2일- 8월 24일(토)~25일(주일)
9월 21일(토)~22일(주일)
3박 4일- 6월 27일(목)~30일(주일)
7월 18일(목)~21일(주일)
8박 9일- 6월 13일(목)~21일(금)
7월 4일(목)~12일(금)
40일- 10월 4일(금)~11월 12일(화)
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7월 개강, 각 6주)
내용: · 영성과 심리의 통합 첫 번째 길-최지원 수녀
· 구약성경 아카데미: 시편 해설-주원준 박사
· 룻을 읽자!-김민 신부
· 서구의 그리스도교 미술-박혜원 강사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교구 전례꽃꽂이 작품 전시회
일시: 6월 15일(토) 11:00~16일(주일) 16:00, 2일간
장소: 교구청 1층 로비
작품주제: 전례 시기, 대축일, 축일, 성경 말씀 등
문의: 교구 전례꽃꽂이 회장 010·4848·5281

교구 사목국 신앙강좌
일시: 6월 22일(토) 13:00
장소: 교구청 1층 대회의실
주제: 교회에 대한 교부들의 가르침
강사: 최원오 빈첸시오(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신청: 사목국 카카오톡 채널로(QR코드 접속) 접수
대상: 전 신자 선착순 120명
문의: 교구 사목국 055·249·7021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미사 주례	문 의
교 구	6월 10일(월) 19:00	중앙동성당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환규 안드레아 신부(예수그리스도 피정집 관장)		010·5247·9900
청 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6월 15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살레시오회	상시 모임(일정 및 장소 문의 바랍니다)		010·6221·3520	대상: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그리스도의 성혈 흠숭 수녀회	상시 모임(일정 및 장소 문의 바랍니다)		010·2567·4164	수도 생활을 원하는 미혼 여성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최봉원 야고보 신부님과 함께하는
몽골 성당 순례 및 문화 탐방 나라여행사
○일시: 7월 6일(토)~11일(목) 4박 6일
○장소: 몽골 내 성당 및 탐방
○금액: 1인 169만 원(변동될 수 있음)
○주관: 나라여행사
▶문의: 설민경 루치아 010·9039·5667

성바오로 마산 성바오로서원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에 있던 성바오로서원이 반송성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많은 이용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25
문의: 055 · 248 · 3089/ 010 · 9753 · 3089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 · 266 · 7010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2024 죽헌로 성모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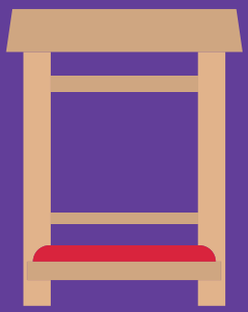
교구 사목국(국장: 최태준 필립보 신부)에서 주관한 '2024 죽헌로 성모의 밤'이 5월 25일 교구청 성모광장에서 진행되었다. 교구청 신청사에서 처음 열린 성모의 밤은 성모님께 드리는 특송과 가야금 연주, 묵주기도 그리고 삼위일체 대축일 미사로 봉헌되었다. 이날 성모의 밤 행사에 교구 사제 및 수도자, 신자 370명이 참석하였으며, 함께한 이들은 성모신심 함양과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교구 임마누엘 장학회 장학 증서와 장학금 수여식

임마누엘 장학회(이사장: 주용민 리노 신부)는 5월 31일 교구청 1층 대회의실에서 교구청 성직자, 수도자, 직원들의 축하 속에 2024년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 증서와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교구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수여식은 성지학원 재단 산하 학교에서 선발된 4명의 장학생과, 교구청 인근 중·고등학교에서 선발된 3명의 특별 장학생 포함, 총 7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주용민 신부는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이 때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곁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좋은 시기에 열심히 노력하여 꿈을 이뤄내고 다른 사람들의 꿈도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격려의 말을 전하였다. 임마누엘 장학회는 1학년을 선발하여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수여하고, 매년 14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고현본당 소년 레지오 '사랑의 샘 Pr.' 창단

고현본당(주임: 여인석 베드로 신부)은 5월 25일 초·중학생 9명으로 구성된 소년 레지오 '사랑의 샘 Pr.'을 창단하고 축하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여인석 신부는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소년 Pr.을 지난해에 이어 하나 더 창단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린다. 이번 소년 Pr.창단을 계기로 레지오 마리애에 새로운 희망의 촛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였다. 고현본당은 지난해에 소년 레지오 '정의의 거울 Pr.'을 창단한 데 이어, 8개월 만에 소년 레지오 '사랑의 샘 Pr.'을 창단함으로써 레지오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고해성사와 교회법 (1)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 명례성지

Q 공동 참회예절로 일괄 사죄를 받을 수 있나요?

A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익숙하지 않은 전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비대면 미사와 공동 참회, 일괄 사죄가 대표적인데 이런 형식의 전례는 특별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례 형태입니다. 일상의 생활을 되찾은 지금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고해성사의 정상적인 방식은 유일하게 '자기의 중죄를 자각하는 신자가 개별적인 온전한 고백을 하고 사죄를 받는 것'으로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고백과 개별 사죄만이 유일한 정상적인 방식이므로 다른 방식은 특별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특별한 상황이란 오직 물리적 또는 윤리적으로 개별적인 고백이 불가능할 때이며, 이때는 개별 고백을 면제하고 다른 방식으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교회법 960조 참조).

물리적, 윤리적으로 개별 고백이 불가능한 때는 **"죽을 위험이 임박하고 한 사제나 여러 사제들이 각 참회자들의 고백을 들을 시간 여유가 없을 때,"**(교회법 961조 1항) 또는 **"참회자들이 자기들의 탓 없이 고해성사의 은총이나 영성체를 오랫동안 못 하게 될 때,"**(교회법 961조 2항)입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은 좁은 의미로 해석되며 참회자를 배려하는 상황에서 넓은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큰 축제나 순례 때 참회자들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고해 사제들이 부족하더라도 특별한 상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특별한 상황임을 판단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님의 권한입니다. 교구장 주교님께서 주교회의의 다른 구성원들과 합의한 기준으로 개별 고백 없이 일괄 사죄를 할 필요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교회법 961조 2항 2호 참조). 따라서 본당 주임 신부님의 단독적인 결정으로는 일괄 사죄를 할 수는 없고, 교구장 주교님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마산교구 사무 2021-59 공문 참조).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베푸는 일괄 사죄를 유효하게 받기 위해서는, 합당한 준비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고백할 수 없는 중죄를 적절한 때에 개별적으로 고백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교회법 962조 2항 참조). 그리고 또다시 일괄 사죄를 받기 전에 되도록 빨리 기회가 있는 대로 개별 고백을 해야 합니다(교회법 963조 참조).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대답의 결론은 교구장 주교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상황에서는 일괄 사죄가 가능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개별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다시금 개별 고백을 통한 개별 사죄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개별 고백 없이 일괄 사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